

자기야, 안방극장 데워놔어…드루와 드루와!

송혜교 ‘남자친구’로 화제몰이
송중기, 아내 후광 속 5월 컴백
이병헌·이민정처럼 ‘부창부수’

스타 부부들이 서로 바통 터치하듯 잇따라 연기 활동을 펼치고 있어 시선을 모은다. 이병헌이 케이블채널 tvN ‘미스터 션사인’을 끝내자 아내 이민정이 SBS ‘운명과 분노’로 돌아왔다. 내년 5월에는 송중기가 현재 tvN ‘남자친구’에서 활약 중인 아내 송혜교의 바통을 건네받아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한다. 혼자서도 충분히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이들이 각각 남편과 아내의 후광까지 이어받아 관심을 두 배로 늘리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민정은 현재 방송 중인 ‘운명과 분노’로 2년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이민정은 남편 못지않은 활약으로 드라마의 인기를 이끌며 이미지 변신에도 성공했다. 이번에야말로 연기가 미모에 가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극중 이민정은 능숙하게 이탈리아어를 소화하고 노래 실력을 뽐내는 등 다양한 매



력을 과시하고 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선보일 예정이다. 그의 활약에 시청률은 10%를 눈앞에 뒀다.

2016년 ‘돌아와요 아저씨’ 이후 육아에만 전념했던 그가 다시 일터로 돌아와 이처럼 활약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병헌의 역할도 뒷받침됐다. 이병헌이 9월 종영한 ‘미스터 션사인’으로 9년 만의 안방극장 복귀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민정 역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부부 중 누군가가 흥행에 실패하면 그 배우자가 활동을 이어가기는 다소 부



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중기·송혜교 부부도 연일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KBS 2TV ‘태양의 후예’에서 호흡을 맞추다 연인으로 발전하고 지난해 10월31일 결혼했다. 2년의 짧지 않은 연기 공백으로 결혼 이후 복귀가 가장 기대되는 스타로 손꼽혀왔다.

‘송·송 부부’의 연기 활동 재개 스타트는 송혜교가 먼저 끊었다. 송혜교는 현재 인기리에 방송하고 있는 ‘남자친구’에서 정치인의 딸이자 호텔 CEO 역을 맡아 단아하고 깔끔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역 박보검과 함께 나오

는 장면에서는 송혜교의 전매특허로 불리는 리블리한 여성스러움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연기력은 물론 헤어스타일과 의상 등 스타일까지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어질 송혜교에 이어 그의 남편 송중기가 5월부터 시청자와 만난다. 송중기는 5월 방송을 시작하는 ‘아스달 연대기’를 통해 연기 변신에 나선다. 송중기가 직접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혀 기대감이 높다.

그는 ‘태양의 후예’에서 카리스마 넘치면서도 연인 앞에서는 ‘달달한’ 매력을 드러냈고, 영화 ‘군함도’에서는 거칠고 처절한 독립군 역을 맡았다. 하지만 ‘아스달 연대기’와 관련한 정보가 공개된 게 거의 없을뿐더러 드라마로는 처음으로 고조선 등 상고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호기심을 자극한다.

‘아스달 연대기’는 상고시대 문명과 국가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판타지 장르로 담아 야외 세트, 컴퓨터그래픽 작업 등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올해 가을 시작한 촬영은 내년 4월까지 이어진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연예

15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해시태그 컷



이하이, 뽕모자도 완벽 소화

가수 이하이의 또렷한 눈동자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은 이하이는 눈으로 웃으며 미소를 살짝 머금고 있다. 여기에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과 뽕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으로 수수한 매력을 돋보이게 한다. 밤의 고요함과 흑백사진이 만나 이하이의 분위기가 더욱 멋스럽게 연출됐다. 팬들은 “뽕모자도 소화하다니” “꾸렸지만 안 꾸민 듯한 패션 센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동아 #이하이 #흑백사진 #분위기감

연예뉴스 HOT 2

‘황후…’ 스태프, 노동법 위반 고발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스태프가 18일 방송사와 제작사 SM라이프디자인그룹을 서울지방법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SBS와 제작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외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촬영일지를 공개했다. 이들은 10월10일 29시간30분, 11월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연속촬영이 진행돼 총 207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BS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며 “촬영 초기 장시간 근로시간이 발생했으나 앞으로 스케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배드 보이’ 빌보드 올해의 케이팝

그룹 레드벨벳의 ‘배드 보이’가 미국 빌보드 선정 올해 최고의 케이팝으로 뽑혔다. 빌보드는 18일(한국시간) ‘비평가들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케이팝 20곡’을 보도했다. 빌보드는 “풍성한 사운드와 생생한 색감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레드벨벳의 팝파탈 정체성을 만들어냈다”며 “R&B의 매끄러움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위는 펜타곤 ‘빛나리’가 선정됐다. ‘올해 최고의 케이팝 앨범 20’에서는 방탄소년단 리퍼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가 정상을 차지했다. 2위에는 샤이니 종현의 마지막 앨범 ‘포에트 | 아티스트’가 올랐다.

‘버닝’ 아카데미 후보에 덩달아 스티븐 연 주목

‘워킹데드’ ‘옥자’ 등으로 유명세 현지언론들 잇달아 활약상 보도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내년 제91회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부문 1차 후보에 오른 가운데 주역 스티븐 연 역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현지 주요 언론이 ‘버닝’에 대한 호평과 함께 스티븐 연의 활약상을 소개해 향후 그의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 아카데미협회는 18일 9편의 외국어영화상 1차 후보작을 발표하며 ‘버닝’을 선정했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선보여 국제비평가연맹상을 수상한 영화는 연말 미 LA영화비평가협회 및 캐나다 토론토 영화비평가협회가 주는 외국어영화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열리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최종 후보로



스티븐 연

호명될지 기대를 모은다.

‘버닝’의 이 같은 성과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배우 12’에 포함된 주연 유아인과 함께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 스티븐 연의 활약에도 기댄 바 크다. 실제로 스티븐 연은 ‘버닝’으로 LA영화비평가협회의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스티븐 연은 5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뒤 다시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 ‘버닝’에 앞서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옥자’로 한국 관객과 친숙해진 그는 드라마 ‘워킹데드’ 시리즈로도 유명세를 누려왔다.

뒤이어 이창동 감독과 호흡해 ‘버닝’의 일정한 성과를 이끌어낸 그를 현지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LA타임스 등 현지 유력 언

론이 잇따라 그의 활약상을 크게 보도했다. 이런 상황은 ‘버닝’의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최종 후보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고 있다.

한편으로는 올해 한국계 존 조를 비롯한 아시아권 배우들이 영화 ‘서치’와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의 흥행을 이끌어내며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과도 관련해 시선을 모은다. 아직 조연급에 머물던 아시아 출신 배우들이 할리우드의 여전한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말해주는 때문이다. 스티븐 연은 바로 그 선두에 선 배우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화 ‘버닝’ 속 미스터리한 캐릭터를 구현해낸 그에 대한 평단과 언론의 호평이 바로 그 방증인 셈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말모이’ 유해진 “윤계상과는 ‘드립 커피’처럼 진한 사이” 영화 ‘소수의견’ 이후 3년만에 재호흡

“커피가 한 방울씩 모여 드립 커피가 돼듯, 윤계상과 만났도 그렇게 진해진다.” 배우 유해진이 윤계상과 영화 ‘말모이’(제작 영화사렘프)를 함께한 소감이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들이 서로 얼마나 신뢰하는지 오직 작품으로 증명된다.

유해진과 윤계상이 합작한 ‘말모이’가 근래 보기 드문 진술하고 몽클한 이야기로 완성됐다.

개봉일인 1월9일까지 3주나 남아있는 데도 18일 첫 시사회를 열고 작품을 공개한 것부터 ‘자신감’이 엿보인다. 평가를 일찌감치 받아 입소문을 퍼트리겠다

는 전략이다. 제작진의 의도는 ‘적중’할 것으로 보인다.

‘말모이’는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지키려는 이들이 비밀리에 조선말대사전을 만드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1940년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기도에 맞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이들의 이야기가 무겁지 않게, 담백하면서도 아찔하게 펼쳐진다. 감동과 눈물은 덤이다.

최근 출연작마다 흥행을 맞본 유해진과 윤계상은 ‘되는 배우’라는 사실을 다시 입증했다. 유해진은 불과 두 달 전 5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한 ‘완벽한 타

인’에 이어 친근하고 소탈한 매력을 과시한다. ‘감옥속 들락거리는 까막눈’이던 그가 차츰 우리말에 빠져들고 끝내 소신을 다하는 모습은 관객의 공감을 얻기 충분하다. 지난해 ‘범퍼도시’를 통한 악역 변신으로 호평과 흥행을 잡은 윤계상은 조선어학회를 이끌며 사전 편찬에 모든 것을 거는 신념 강한 인물로 제 몫을 해냈다.

2015년 ‘소수의견’에서 호흡을 맞추고 3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이 서로에 갖는 믿음의 깊이는 시사회 뒤 간담회에서 또 고스란히 전해졌다. 유해진은 “윤계

상은 뜻을 같이하는 동지”라고 했다. 이에 윤계상은 “배우로서 나아가야 하는 곳에 먼저 가 있는 선배가 바로 유해진”이라고 화답했다.

‘말모이’는 지난해 1218만 관객을 모은 ‘택시운전사’의 시나리오를 집필한 염유나 작가의 연출 데뷔작이다. 신인답지 않은 연출력을 드러낸 감독은 “우연히 말 모으기 작전에 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다”며 “일제에 맞서 우리말을 지킨 이름 없는 이들의 감동을 관객에게도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